

Daily Auto Check

2020. 7.22(Wed)



자동차/타이어

Analyst 김준성

02.6454-4866

joonsung.kim@meritz.co.kr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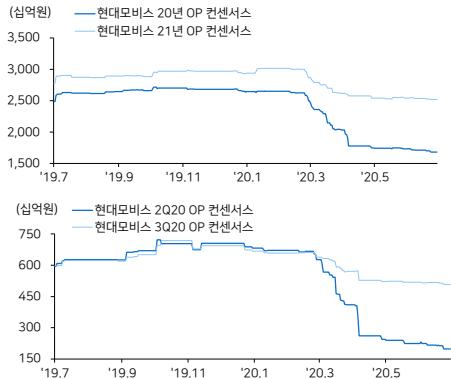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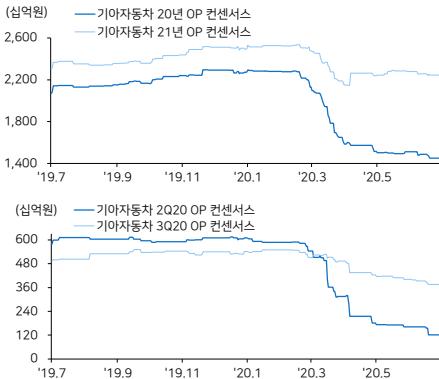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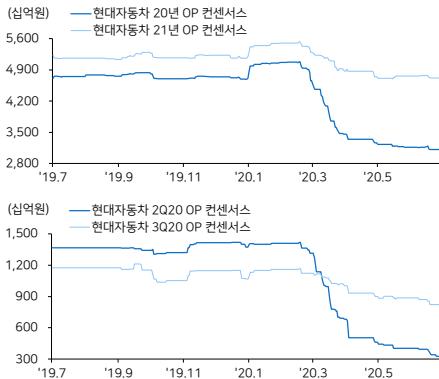
RA 이다빈

02.6454-488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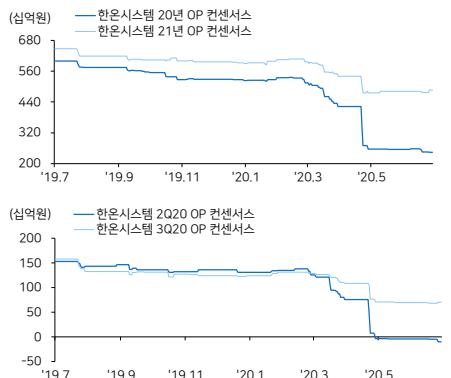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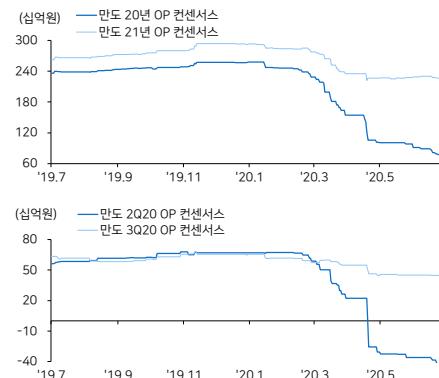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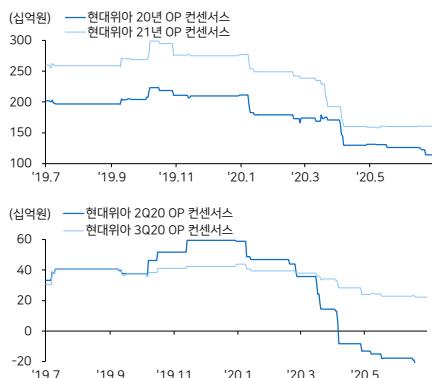
dabin.lee@meritz.co.kr

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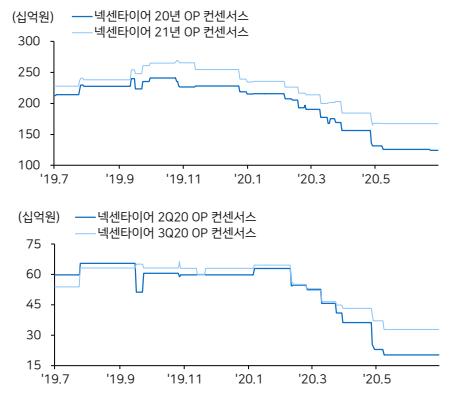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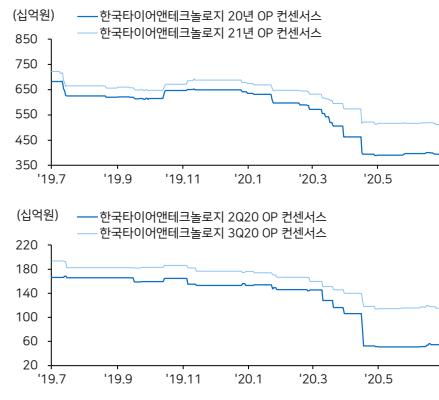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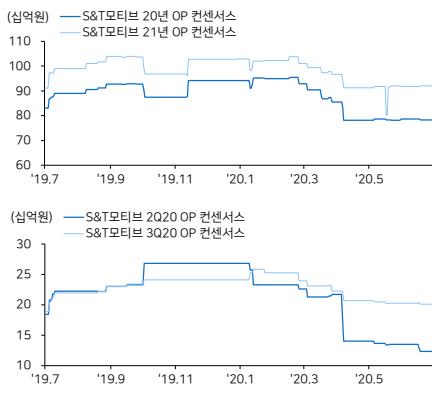
현대차 / 기아차 / 현대모비스



현대위아 / 만도 / 한온시스템



S&T모티브 / 한국타이어 / 넥센타이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국내외 주요 뉴스

삼성·현대차 '차세대 모빌리티' 육성 손잡아 (경향일보)

재계 1, 2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미래 먹거리가 될 '차세대 모빌리티 산업' 육성과 발전에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함.
<https://bit.ly/32IL15I>

한상원, 한온시스템 매각 놓고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경영권 항쟁 주시 (비즈니스포스트)

한상원 한앤컴퍼니 사장이 한국테크놀로지그룹의 경영권 항쟁에 집중, 한앤컴퍼니는 한온시스템 보유지분을 매각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할 시점인데 한온시스템 주식의 우선매수청구권을 지닌 그룹의 경영구도에 변수가 많기 때문.
http://www.businesspost.co.kr/BP?command=article_view&num=188310

자동차부품사, 7~9월 유례없는 유통성 위기온다 (내일신문)

자동차부품업체들이 7~9월 유례없는 유통성 위기에 직면할 것이라 우려가 제기됨. 정민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올 4월부터 7월초까지 수출이 급감했다며 6월 한순간에 유통성 위기가 시작됐고, 7~9월이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.
<https://bit.ly/39luKoC>

푸조 e-208 출격…2천만 원대 수입 전기차 (노컷뉴스)

푸조는 21일 순수 전기차(EV) '뉴 푸조 e-208'을 출시하고, 판매에 돌입. 푸조 e-208은 보조금을 적용하면 2천만 원대에 구입 가능한 첫 수입차가 될 전망. 테슬라 모델3의 국내 성공에 이어 수입 전기차의 대중화가 열리고 있음.
<https://bit.ly/3jromkb>

정의선의 '모빌리티 구상' 키맨으로 떠오른 코드42 송창현 대표 (뉴스투데이)

코드42는 네이버 최고기술책임자(CTO) 출신의 송창현 대표가 지난해 초 설립한 자율주행 TaaS(aTaaS · 자율주행 교통시스템) 기업. 스타트업 기업이자 네이버와 카카오 출신의 핵심 기술 인력들이 대거 친립 멤버로 합류.
<http://www.news2day.co.kr/m/page/view.php?no=156995>

반도체·자동차 주춤…7월 1~20일 수출 전년比 12.8% ↓ (머니투데이)

수출입현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반도체와 승용차, 석유제품이 각각 1.7%, 14%, 41.6%씩 수출액이 줄어 전체 수출액 감소를 이끌었음.
<https://bit.ly/2OMVzbL>

위기의 쌍용차, 첫 전기차 'E100' 티저 이미지 공개 (중앙일보)

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쌍용자동차가 브랜드 첫 전기차 'E100'이 티저 이미지를 공개. 티저 이미지 속 E100는 기존 쌍용차 패밀리룩을 따르면서도 2018년 제네바모터쇼에 출품했던 전기 쿠페형 'e-SIV'의 디자인이 녹아 들어가는 배터리셀은 LG화학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.
<https://bit.ly/30tz40s>

CATL, 중국 용 모델3에 리튬인산철 배터리 공급 개시. LG화학은 장거리용만 공급 (M오토데일리)

중국 배터리업체 CATL이 7월부터 테슬라 중국 용 모델3에 리튬인산철(LFP) 배터리를 공급. 현재 테슬라 차이나 모델 3에 들어가는 배터리셀은 LG화학 중국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.
<https://bit.ly/3jh4Vpf>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지로서 오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협력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